## 제 16 장 불교 철학의 시작

### 1. 싯다르타의 고통의 치료학

#### 1) 네 가지 성스러운 가르침, 혹은 사성제(四聖諦)

→ 고(苦; dukkha): 싯다르타(Siddhārtha, BC 563?~BC 483?)가 치료하고자 했던 삶의 핵심적인 문제, 여기서 고(苦)는 단순히 협소한 의미에서의 고통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, 일체의 불만족스러운 마음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다.
→ 집(集; sambhava): 싯다르타는 고통의 원인을 집착과 번뇌라고 이해한다. 고통은 집착과 번뇌와 같은 정신적인 원인이나 욕망과 같은 육체적 원인이 응집되어[集] 출현하는 것이다. 여기서 집착과 번뇌는 인간이나 대상에 불변하는 자기동일성이 존재한다는 믿음과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.
→ 멸(滅; nirvāṇa): 고통의 원인이 소멸되어 고통이 사라지게 된 마음 상태를 가리킨다.
→ 도(道: mārga): 고통의 원인, 즉 집착이나 번뇌를 소멸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한다. 흔히 불교에서는 여덟 가지 방법, 팔정도(八正道)를 이야기한다.

| 손오공(孫悟空)의 혜(慧) | 저팔계(猪八戒)의 계(戒) | 사오정(沙悟淨)의 정(定) |
|---|---|---|
| ①바른 견해(正見)<br>②바른 사유(正思) | ③올바른 말(正語)<br>④올바른 행동(正業)<br>⑤올바른 생활(正命) | ⑥올바른 노력(正精進)<br>⑦올바른 주의(正念)<br>⑧올바른 집중(正定) |

#### 2) 여덟 가지 방법 중 싯다르타가 가장 강조했던 것은 바로 '올바른 견해[正見]'이었다.

> ◇ 올바른 지혜를 가지고, 되어 있는 그대로(如實如如) 세상의 일어남을 지각하는 사람에게는, 세상에 '비존재'라는 개념은 나타나지 않는다. 캇차야나(Mahakatyana; 迦旃延)야. 올바른 지혜를 가지고, 되어 있는 그대로 세상의 소멸함을 지각하는 사람에게는, 세상에 '존재'라는 개념은 나타나지 않는다. (…) 캇차야나야. 바로 이것이 '올바른 견해(正見)'이다. '모든 것은 존재한다'-캇차야나야! 이것은 하나의 극단이다. '모든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'-캇차야나야! 이것도 또한 하나의 극단이다. 캇차야나야! 두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여래는 중도(中道)로써 하나의 가르침을 설하여 주마! -『가전연경(迦旃延經)』

→ '모든 것은 존재한다'는 표현은 이 세계 모든 것에는 변화와는 무관한 자기동일성[自性]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. 불교에서는 이런 견해를 '상견(常見)'이라고 규정한다. '모든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'는 표현은 이 세계 모든 것에는 어떤 자기동일성이 존재하지 않고 끝없이 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. 불교에서는 이런 견해를 '단견(斷見)'이라고 한다.
→ 상견이나 단견은 모두 일상적인 경험을 사변적으로 추상화해서 구성된 형이상학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. 인과론적으로 생각해보면, '상견'은 원인 속에 결과가 미리 존재한다는 주장이라면 '단견'은 원인 속에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. 싯다르타의 중도(中道)란 이 두 가지 극단적인 견해를 버리고 세계를 '있는 그대로' 보려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다.